



가수 소나와 유열이 '아름다운 강산'을 열창하고 있다. 이날 음악회가 열린 용산전쟁기념관에는 1만여 불자들이 모여 평화의 노래를 함께 불렀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열린음악회 시작에 앞서 한반도평화를 위한 정진을 당부했다.



열린음악회에서 1만여 참석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하고 있다.

秋夜를 뜨겁게 달군 '평화의 음성공양'

한반도평화대회 봉행위, 9월 3일 열린음악회 성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넋을 위로하고 이 땅의 평화를 노래하는 자리가 열렸다.

"한반도평화대회 봉행위원회" (위원장 자승)와 KBS는 9월 3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열린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음악회에는 인기 가수 장윤정, 조성모를 비롯해 유열, 소나, 박현빈, 웅산, 아웃사이드, 노브레인 등이 출연해 신명나는 무대를 만들었다. 공연 시작 한시간 전부터 웅산 일대는 음악회를 보기 위해 온 1만여 불자들이 북적였다.

음악회는 불교를 홍보하는 영상으로 시작했다. 1700년 역사를 이어온 한국불교의 곳곳과 간화선, 불교세계화 등이 영상을 통해 소개됐다.

이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개회사가 있었으며, 한반도평화대회 주최 측 스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부르는 평화의 노래도 진행됐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이날 열린음악회는 '위로와 경의', '화해와 상상', '미래와 희망'을 주제로 평화대회의 의미를 문화와 공연예술로 표출하는 것"이라며 "모든 국민의 가슴에 평화에 대한 염원을 굳게 하는 커다란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스님은 또 "민족이 서로를 불신하고, 서로 긴장하며 불안한 삶을 사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라며 "불자들이 앞장서 불행한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인류평화에 기여하자"고 말했다. 자승 스님은 9월 27일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리는 '자비구현

인류화합 한반도평화대회'에 많은 불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한반도평화대회 봉행위가 주관한 행사에 이어 KBS열린음악회가 곧바로 이어졌다.

"참 좋은 날씨입니다. 가을을 맞아 열린음악회에서 여러분을 만나 반갑습니다. 정전 60주년을 맞아 전쟁의 상흔을 기억하는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노래하게 돼 영광입니다."

음악회의 첫 순서는 유열과 소나가 맡았다. 의정부시립합창단과 함께 부른 '아름

서 음악회를 보고 있던 시민들도 아쉬움을 뒤로하고 LED화면을 통해 함께 공연을 즐겼다.

박현빈의 무대로 이미 흥이 오를 대로 오른 무대는 국민가수 장윤정이 등장하며 방점을 찍었다. 장윤정은 '왔구나 왔어' '어머나' '잔짜' 등 자신의 히트곡을 모두 불렀다. 이어 KBS 예술단의 라틴댄스와 웅산, 아웃사이드, 노브레인, 조성모 등의 열창이 이어졌다.

서울 가락동에서 온 이임자 씨는 유난히 즐거워 보였다. 그녀는 "불교계가 이런 자리를 마련해 불자로서 기분이 좋다. 여러 생명의 안부를 바라는 부처님 가르침이 잘 실현되도록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활짝 웃었다. 한편, '한국전쟁 정전60주년 한반도 평화대회 운영위원회(상임운영위원장 수불)'는 9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27일 진행하는 '한반도 평화대회'의 주요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먼저 오후 10시 부산 UN기념공원에서 한국전쟁 희생자를 위한 수륙천도제가 열린다. 천도제에서는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국군과 UN군 14만 명과 북한군, 중국군 등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한다. 운영위원회 측은 전쟁기념관에 보관된 전사자 명부에서 국군과 UN군 명단을 받아 분류해 이날 영가천도를 기원할 계획이다. 호국선열의 희생을 하나하나 기억하겠다는 의지다. 천도제를 봉행한 스님들이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으로 입장하는 오후 2시에는 본격적인 대회 일정이 시작된다.

범종 타종과 승무 공원이 먼저 장엄하게 펼쳐진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개막 선언과 상임운영위원장 수불 스님의 경과 보고, 순국선열을 위한 묵념이 진행된다. 이어 108산사순례기도회가 네팔 룸비니에서 길어 올린 평화의 불을 안좌하며 행사 시작을 알린다.

뮤지컬 음악감독 1호 박칼린, 신영일 MC의 사회로 기념공연 1회차에는 오케스트라 가수 폴 포츠, 다문화가정 아이들로 구성된 레인보우어린이합창단, 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화합의 노래를 부른다. 이어 고분들과 함께 봉행사, 대회연설 등이 진행되며 황병기 지휘자의 지휘 아래 기념공연 2회차로 부산시립국악관련악단의 무대가 마련된다.

2회차 공연 이후에는 기념사와 축사, 한반도평화연대사 및 평화 기원 타종 등이 진행되며 바비킴, 인순이, 이선희 등 대중가수 등이 신명나는 노래를 뽐낸다. 끝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달래는 살풀이 한마당이 대미를 장식한다.

행사장에는 50m 높이의 초대형 LED 모니터가 설치되며 남북문과 사찰을 의미하는 대형 세트장에 가로 72m, 높이 20m의 연꽃을 상징하는 무대가 세워질 예정이다. (02)575-9123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국전쟁 정전60주년 2013 한반도평화대회 기념행사 발차취

- 2월 20일 대외 선포 기자회견
- 2월 27일 제1회 한반도 평화세미나
- 3월 15일 조계종 국립현충원 참배
- 3월 16일 범어사 수륙재
- 4월 23일 범어사 한반도 평화 기원 100일 기도 입재
- 4월 30일 통도사 한반도 평화 기원법회
- 5월 2일 임진각 평화의불 이운법회
- 통도사 한반도 평화통일 100일 기도 입재
- 5월 8일 진관사 주한외국대사 참석 리셉션
- 5월 10~13일 탁ئات 스님 초청 평화법회
- 5월 24일 제2회 한반도 평화세미나
- 6월 8일 용산 전쟁기념관 호국영령위령대제
- 6월 25일 통도사 평화 기원 100일 기도 입재
- 7월 26~28일 조계종 어린이청소년 DMZ 평화순례
- 8월 15일 풍등제
- 8월 28일 한국전쟁 정전60주년 한반도평화대회 국제포럼
- 9월 3일 KBS열린음악회 녹화
- 9월 27일 한국전쟁 정전60주년 한반도평화대회 본행사



장윤정이 '어머나'를 부르며 울고 있다.



노래를 함께 따라하며 즐거워하는 스님들

2013 제15차 봉녕사 세계 사찰음식 대향연

10월4일(금)~5일(토)



'이제는 세계다!'

사찰음식 본찰 봉녕사에서 국내최초 전 세계 불교국가를 초청하여 세계사찰음식대향연을 엽니다!

2013 WORLD TEMPLE FOOD FESTIVAL

- 보시-사찰음식 경연대회
- 지계-한국의 전통사찰음식과 7개국 불교국가의 사찰음식 전시
- 인욕-7개국 스님들의 장엄한 탁발순례
- 정진-우관스님/지건스님 사찰음식 강의
- 선정-B-Boy, 색소폰, 풍물놀이패, 강강술, 다문화어린이 공연
- 지혜-7개국 세계사찰음식부스, 먹거리부스, 체험부스 (단주, 연꽃떡, 고치만들기, 무채가늘게 썰기, 떡메치기, 투호던지기)

사찰음식 경연대회 참가요강

접수마감: 9월22일(일)17시(개인10팀/단체2팀) 참가자 전원 20만원 재료비 지원
 제출서류: 봉녕사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파일 다운로드, 양식에 맞춰서 제출
 시상내용: 육바라밀상 시상-시상식:10월5일(토)16:30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참가한 모든 팀에게 기념품 증정
 주소 442-19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248 봉녕사[사찰음식대향연 담당자 앞]
 홈페이지 www.bongnyeongsa.org
 이메일 templefood@bongnyeongsa.org
 전화번호 031-242-5412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봉녕사
 주관: 세계사찰음식대향연 조직위원회
 후원: 경기도, 수원시, 경기지방경찰청, (사)세주불교문화원